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피해자 평가에 미치는 영향¹⁾

최광선 · 정명선

경북대학교 심리학과

이 연구의 목적은 공격 특성과 성폭력 영상물에의 반복 노출이 남성 피험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데 있다. 공격 특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공격성 척도를 개발한 후, 122명의 남자 대학생들에게 실시하여 공격 특성이 높은 집단과 낮은 집단 각각 30명을 선발하고, 공격특성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두 집단에 무선 배치해서 성폭력 영화를 시청하게 하고서는 정서 척도, 영화평가척도, 및 피해자 평가척도에 반응토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다음과 같다. 즉,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에 비해 불안감과 불쾌감을 덜 나타내었고, 고공격 특성집단은 영화의 폭력수준은 낮고 재미있다고 평가했으나, 저공격 특성집단의 평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고, 고공격 특성집단의 피해자의 피해 정도에 대한 평가는 낮아졌으나, 저공격 특성집단의 평가는 거의 변하지 않았다. 즉, 폭력수준 평가의 감소는 성폭력 영화에 대한 흥미수준 평가의 증가로 연결되었고, 피해자에 대한 낮은 평가는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 평가로 나타났다. 이런 폭력수준과 피해자에 대한 평가의 변화는 영상 폭력물에 대한 더 심화된 제재의 필요성을 제기해 주는 것으로서, 앞으로 이 문제에 관한 보다 더 정교한 연구가 요구된다.

이 연구는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남성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평가(폭력수준평가, 흥미 수준평가), 및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해명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요즈음 대중매체에서 특히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영상물이 증가 일로에 있다는 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Eron, Gentry, &

Schlegel, 1994). 미국에서의 조사 통계에 의하면, 아동들이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8,000건 이상의 살인 장면과 100,000건 이상의 폭력행위 장면을 대중매체에서 목격하는데, 그 가운데서 반수 이상이 여성과 관련되는 것이라고 한다(Huston, 1992). 20년 훨씬 전에 미국의 공중 위생국은 "텔레비전 폭력물은 확실히 우리 사회의 일점 구성원에게 해로운 효과를 준다."라고 결론지었다. 지금

1) 이 논문은 1998년도 경북대학교 공모과제 연구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우리 실정에서도 대중매체의 공격성이 청소년의 반사회적 행동의 주요 원인의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곽금주·윤진, 1992).

이런 폭력물들에서는 대개 여성을 성적으로 괴롭히고 확대하려고 남성이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이 많이 나오는데(Leidholdt, 1983), 남성들이 그런 장면을 자주 보게되던 여성에 대한 성폭력행위가 고무되어 피해여성이 겪는 고통에 대해서 둔감하게 된다(Malamuth & Donnerstein, 1982).

영상 폭력물이 개인의 공격적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공격 특성이란 개인의 성격요인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성폭력 영상물 제작자들은 성폭력 영상물이 시청자의 공격적 감정과 행동에 미치는 효과는 크지 않다고 주장하나, 그것은 개인의 성격변인과 관련시켜 고려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된다.

지금까지 공격 영상물과 관련된 연구에서 성격요인이 거의 무시되어 온 원인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자들은 개인의 특질보다는 공격의 상황적 요인을 더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Josephson, 1987; Strube, Turner, Cerro, Stevens, & Hinchey, 1984). 둘째, 성격 구성개념에 공격 이론이 거의 반영되지 않았다는 것을 들 수 있다. 공격에 대한 몇 가지 이론이 제시되기는 하였지만(Bandura, 1973; Berkowitz, 1974; Zillmann, 1979), 성격과의 관련을 확실하게 다룬 이론은 찾아볼 수 없으며, 또 성격변인이 상황적인 효과를 조절한다고는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공격적인 경향은 시간적 요소나 상황과 상관없이 안정적 특성을 지닌다는 연구결과들(Huesmann, Eron, Lefkowitz, & Walder, 1984; Olweus, 1979)도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성격변인인 공격 특성을 포함시켜 성폭력 영상물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폭력 피해여성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 노출과의 관계

최근 들어 폭력 영상물의 효과를 시청자의 기억 체계 및 인지기능으로 이해하려는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즉 사회 인지적 관점에서, 관찰된 공격 행동이 관찰자의 연관된 사고 및 정서 등을 기억, 활성화시킴으로서 또 다른 형태의 공격행동을 유발한다는 것이다.

Berkowitz(1984)는, 사고(thought), 감정(feelings) 및 행동(action)은 기억 속에 함께 연결되어 연합망(associative network)을 형성한다는 개념을 제안하였다. 연합망이라는 개념은 개인의 사고요소(thought element)가 서로 의미 있는 것끼리 마디(node)들로 연결되며, 이 경로를 따라서 사고와 기억이 생성되고, 또 다른 관련 기억이 활성화된다는 활성화 확산(spreading activation)으로 설명할 수 있다(Collins & Loftus, 1975). 즉 점화된 적이 있는 개념은 기억에서 보다 접근이 쉬운 데, 성폭력 영화가 제시하는 공격 개념은 그 영화를 보는 동안 개인에게 다른 공격 개념을 가질 기회를 높여 줌으로서 의미적으로 관련된 그 밖의 다른 사고를 점화시킬 수 있게 한다. 그런 사고들은 정서반응과 행동경향으로 연결된다. 따라서, 영상물을 통한 성폭력의 관찰이 공격 개념, 폭력 정서, 그리고 공격행위로 이루어지는 연합을 생성하게 한다.

Berkowitz(1984)는 그의 모델에서 성격특성의 역할을 논의하지는 않았지만, 공격성과 같은 성격특성은 용이하게 그의 모델에 포함되어 질 수 있다(Bushman, 1996; Bushman & Geen, 1990). 공격성의 개인차는 일반적으로 성격검사로 측정되는데, 각 개인의 공격적 행위, 사고, 동기, 및 정서에 대한 과거 경험이 검사 문항에 반영된다. 예를 들면, 다른 사람을 위협한 과거 실례를 얼마나 회상하느냐 하는 것 등이다. 피험자는 폭력 자극의 점화기능과 꼭 같은 연합망을 가지고 문항에 반응하므로, 검사 점수는 피험자의 공격인지 연합망의 발달과

범위의 정도를 알려준다. 따라서 공격특성 점수가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더 넓은 공격인지-연합망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Bushman(1996)도 공격성이 높은 사람이 공격성이 낮은 사람보다 더 광범위한 공격인지-연합망을 가진다는 개념을 입증하는 실험을 하였다. 이 연구에서 피험자에게 단어쌍의 유사성 평정을 하도록 하였다. 제시된 단어 쌍은 공격적-공격적, 공격적-모호한, 모호한-모호한 단어 쌍 등 세 유형이었다. 결과에서 보면, 공격특성이 높은 개인은 공격 단어끼리의 연합과, 공격 단어와 애매모호한 단어의 연합을, 애매모호한 단어끼리의 연합보다 더 유사하다고 구분하였다. 또 모호한 단어들 끼리의 연합에서는 공격특성이 높은 개인과 낮은 개인 사이에서 유의미한 차가 보이지 않았다.

Berkowitz(1984)의 이론을 보다 확장한 Bushman(1996)의 주장은 폭력 영상물에 의해 가장 영향을 받기 쉬운 사람은 누구인지를 예측하는데 기초가 되는 메커니즘을 제공한다. 즉 공격성에서의 개인차는 공격관련 사고, 정서 상태, 행위 경향, 및 행동적 반응을 이끌어 내는 폭력 자극과 상호작용을 한다. 특히 공격특성이 높은 개인은 보다 광범위한 공격적인 인지-연합망을 가져, 공격특성이 낮은 개인보다 공격적인 단서에 대해 더 잘 반응한다. 그것은 폭력 영상물에 대한 반복 노출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형성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공격특성이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폭력적 단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격적 연합-인지망이 더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폭력 영상물에 더 편안함을 느껴(Bushman, 1996), 불안도 덜 느낀다.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 노출과 평가의 변화

성폭력 영화에 대한 반복 노출의 효과는 둔감화(desensitization)의 관점에서 설명이 가능하다. 즉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적 노출은 시청자로 하여

금 폭력의 위해(危害)를 둔감하게 하여 폭력의 수준을 낮게 평가하게 하고, 폭력 피해자에 대한 도움행동을 억제하게 한다는 것이다.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면, 노출 요법(exposure therapy)을 받는 것처럼 시청자가 처음 가졌던 여성 폭력에 대한 불안감이 점차 줄어들게 된다(Linz et al., 1988). 노출 요법은 불안 반응에 의해 억제된 행동을 회복하도록 개인을 훈련시키는 효율적인 임상 절차로서 중시된다(Paul & Bernstein, 1973). 불안 유발 대상이나 상황에 환자를 점차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노출시키는 체계적 둔감화(systematic desensitization)와 같은 역 조건형성(counterconditioning) 기법은 조건자극과 불안 반응 사이의 연합을 약화시켜 불안반응을 감소시킨다(Wolpe, 1958). 이처럼 환자에게 조건화된 정서 자극을 반복 제시하면 불안을 감소시킬 수 있다(Kazdin & Wilcoxin, 1976).

Lang(1979)은, 둔감화 요법은 노출과 심상을 통하여 환자의 불안 자극의 정신 도식을 유발하게 하고, 억제 정보를 이용하여 그 도식의 불안 요소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다시 말하면, 노출 요법은 불안 자극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환자 자신의 습관화(habituation)를 자기 인식케 하여 불안 자극 도식을 수정하는 것이라 하겠다(Foa & Kozak, 1986; Wilkins, 1971). 환자가 자신의 불안이 감소되는 것을 인식하게 되면 불안 자극으로부터 불안 반응이 분리되게 되어, 불안 자극과 연합된 부정적 유인가를 변화시킨다(Davison & Wilson, 1973; Reid, 1973).

성폭력 영화에 대한 반복 노출에도 이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시청자가 성폭력물에 반복 노출됨으로서 영화에 흥미를 느끼게 되면, 그들은 영화의 폭력수준은 낮고, 또 영화는 재미있다는 등의 자기인식을 사용하게 된다. 이렇게 수정되어진 지각 반응과 감정 반응은 실제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평가에까지도 영향을 주게 된다.

따라서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적 노출은 성폭력의 위해성을 과소 평가케 하여, 실생활에서 공격 경향성을 증가시킬 것이다.

Donnerstein과 Berkowitz(1983)는 성폭력 영화의 효과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첫째, 선정적인 묘사에도 성폭력이 결들여진 영화는 선정적인 묘사만 하는 영화보다 폭력성을 지닌 남성에게 여성 폭행을 더 많이 자극한다는 것이다. 둘째, 이런 영화에 등장하는 여인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폭력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남성의 반응은 달라진다는 것이다. 영화 속의 여성이 자신에게 가해지는 성폭행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게 된 남성들은 대체로 그 영화가 그다지 폭력적이지 않다고 평가하며, 영화 속의 여성에게 닥친 비극적인 결과에 대해 여성 자신에게 더 많은 책임이 있다고 평가한다. 그러나 이런 지각반응과 감정반응에는 평가자의 성격변인에 따라 개인차가 있게 된다. 즉, 고공격 특성자가 저공격 특성자보다 폭력의 위해성을 더 과소 평가하는 것은, 부정적 감정과 연합된 고공격 특성자의 자기인식이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노출에 따라 둔감해진 결과라고 할 수 있다(Bushman, 1996).

연구자들은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 노출이 여성 피해자에 대한 관심, 감정이입, 동정을 줄이는 효과를 조사해 왔다. Linz, Donnerstein, 및 Penrod는 1주(Linz et al, 1984) 또는 2주(Linz et al, 1988)의 기간에 걸쳐 남성 피험자들을 다섯 개의 성 공포 영화에 노출시켰다. 각 영화를 보고난 뒤에, 피험자의 정서반응, 폭력에 대한 지각, 및 여성에 대한 태도가 측정되었다. 결과에서 보면, 영화를 보는 첫째 날과 마지막 날 사이에 영화를 보고 느끼는 피험자의 불안감과 우울감이 점점 줄어든다는 것이 밝혀졌다. 또 피험자들은 폭력의 심각성을 덜 지각하게 되었으며, 여성이 학대받는다고는 생각하지 않았다. 또 피험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한 여성 피해자의 법정 재판에 대한 비디오테이프를

보여 주고 그 여성에 대해 평가하도록 하였다. 결과에서 보면, 성폭력 영화에 노출되었던 피험자들은 노출되지 않았던 통제집단보다 그 피해 여성을 덜 동정하였다.

지금까지의 연구에서는 폭력영화에서의 반복노출에 따른 둔감화 효과를 성격변인과 관련시킨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성폭력 영상물에서의 반복 노출이 시청자의 기분변화, 폭력영화 및 폭력 피해여성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성격변인인 공격특성을 고려하여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통하여 그런 것들을 검증해 보고자 한다.

1. 성폭력 영화에 대한 불안감은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더 낮을 것이며,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다.
2. 공격특성의 수준과 성폭력 영화에서의 반복 노출에 따라 영화에 대한 평가는 달라질 것이다.
 - 2-1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영화의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며,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영화의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 2-2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성폭력 영화를 더 재미있다고 평가할 것이며,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영화는 더 재미있다고 평가할 것이다.
3.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며,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다.

방법 및 절차

피험자

남자 대학생 122명을 대상으로 공격성척도를 실시하여 공격특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공격성척도 점수범위는 36 - 136점이었으며, 평균과 표준편차는 80.84, 11.32이었다.

검사 점수에서 88점 이상인 상위 25%를 고공격 특성집단으로 하고 74점 이하인 하위 25%를 저공격 특성집단으로 하여 총 60명(고공격 특성집단 30명, 저공격 특성집단 30명)의 피험자를 선정하였다.

실험도구

(1) 공격성척도

고공격 특성의 피험자와 저 공격 특성의 피험자를 분류하기 위한 공격성척도를 우리 실정에 맞게 개발하였다. Buss와 Perry(1992)의 31문항의 AQ(Aggression Questionnaire)를 번역(5점척도를 사용한 29문항의 자기 보고식 측정검사, 2개의 역 문항을 포함)하여 대학생 332명에게 실시한 결과, 4개의 요인으로 구성되는 29개 문항의 공격성척도가 작성되었다. 29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5$ 였다. 그리고 155명의 동일 집단에 대하여 4주 간격으로 검사-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총점간 상관인 .87이었다.

(2) MAACL 정서척도

Zuckerman과 Lubin(1965)의 MAACL(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list)은 지금 - 오늘(now-today)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3차원의 감정 상태(우울감, 불안감, 적대감)를 기술하는 132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다. 이는 긍정적인 형용사로 체크된 수와 부정적인 형용사로 체크된 수의 차이로 정서점수를 산출하는데, 윤진과 박금주(1991)가 우울감, 명랑감, 불안감, 안정감, 불쾌감, 유쾌감의 6차원으로 확대하여 각 차원에 들어가는 형용사의

수를 조정하였고, 윤진과 박윤창(1997)이 이를 5점 척도로 수정하여 만든 MAACL을, 영화 시청전 후에 시청자들의 정서 변화 측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였다.

(3) 영화 평가척도

이 척도는 폭력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7문항(1, 2, 4, 5, 7, 8, 10번)과, 영화의 흥미수준을 평가하는 척도 3문항(3, 6, 9번) 모두 10문항으로 구성되었다(부록 1).

폭력수준 평가척도 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 이었으며, 흥미수준 평가척도 3문항의 신뢰도는 $\alpha=.89$ 이었다. 각 문항은 무선적으로 배열, 제시되었다.

(4) 피해자 평가척도

여성 피해자를 평가하기 위한 피해자 평가척도는 Linz 등(1984, 1988, 1989)과 Mullin & Linz (1995)이 사용한 피해자 평가척도(5점척도, 29문항)를 우리 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수정하였다. 문항분석을 통하여 최종 27개의 문항을 선택하여 구성된 척도를 대학생 282명에게 실시하고 요인 수를 3개로 지정하여 요인분석(Direct Oblimin 사각회전)한 결과, 3개의 요인이 추출되었다. 이 요인들의 최종 고유치는 8.79, 6.07, 5.78이었으며, 요인들은 각각 총 분산의 32.56%, 22.48%, 21.42%를 설명하였다. 제1요인은 피해자의 상해요인(2, 4, 5, 8, 10, 11, 14, 16, 17, 19, 21, 23, 26번), 제2요인은 피해자에 대한 호감요인(3, 6, 9, 12, 15, 20, 22, 24번), 제3요인은 피해자의 책임요인(1, 7, 13, 18, 25, 27번)으로 나타났다. 2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0$ 이었다. 그리고 142명의 동일 집단에 대하여 4주 간격으로 검사 - 재검사를 실시한 결과는 총점간 상관인 .88이었다(부록 2).

자극재료

피험자들에게 노출시켰던 영화 자극은 모두 슬

래서 장르의 공포 영화로 ‘13일의 금요일 II(Friday the 13th; Part II)’, ‘스크림(Scream)’, ‘텍사스 살인마(Texas Chainsaw Massacre)’의 세 가지 영화로서, 역 균형화(counterbalancing)시켜 피험자들에게 제시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영화는 슬래서 영화의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을 다룬 연구(Weaver, 1991; Linz & Donnerstein, 1995; Molitor & Sapolsky, 1994)에서 쓰여진 영화목록과, 슬래서 영화를 사용하여 성폭력 영화에 대한 둔감화를 다룬 연구(Linz, Donnerstein, & Penrod, 1984, 1988, Mullin & Linz, 1995)를 참고로 하여 선정하였다. 선정되어진 3편의 영화를 심리학전공 대학생원 6명에게 폭력성의 정도(5점척도, 5문항)를 평정케하는 예비측정을 한 결과, 폭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M=4.21$, $SD=.43$).

연구절차

공격성척도에 의해 분류된 고공격 특성과 저공격 특성의 피험자들은 R등급의 슬래서 공포영화에 노출되었다. 피험자들은 각각 30명씩 공격특성의 정도와는 상관없이 두 집단에 무선 배치되었다. 피험자들은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 각각 한편씩의 자극영화에 노출되었다. 한 집단에게는 ‘13일의 금요일 II’, ‘스크림’, ‘텍사스 살인마’의 순으로 제시되었고, 다른 집단에게는 그것의 역 순(逆順)으로 제시되었다.

실험의 단계가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감추기 위하여, 한 집단에게는 “인간 지각연구”, 다른 집단에게는 “설득 커뮤니케이션의 요인 분석연구”라고 말해 주었다. 또 피험자들에게 실험기간 일주일 동안은 다른 폭력영화를 보는 것을 피하도록 요청하였다.

기분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첫째 날과 둘째 날, 마지막 날 영화시청 전과 후에 MAACL 정서평가 점수가 측정되었다. 영화시청 기간동안 정서

변화를 일으킬만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자기 보고한 사람(2명)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그리고 첫째 날과 둘째 날, 마지막 날 영화시청 후 영화의 폭력 수준과 흥미수준을 평가하는 영화 평가점수, 또 피해자 평가점수가 측정되었다. 실험 마지막 날에는 실험의 목적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

결 과

MAACL의 기분변화 분석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에 따른 고공격 특성 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기분변화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영화시청 전 후의 MAACL 정서평가 점수를 측정하였다. 영화시청 기간동안 정서변화를 일으킬만한 사건을 경험했다고 자기 보고한 사람(2명)은 제외하고 평가점수를 분석하였다. 각 집단의 첫째 날 영화시청 전 후, 둘째 날과 마지막 날 영화시청 전 후에서의 정서평가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 <표 1>이다.

공격특성(고공격 특성/저공격 특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평가일(첫째 날/둘째 날/마지막 날)과 평가시점(영화시청 전/후)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여섯 가지 정서점수에 대하여 다변량분석(MANOVA)한 결과가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에서 볼 수 있듯이 공격특성[$F(6, 51)=12.59$, $p<.001$]과 피험자내 변인인 평가일[$F(6, 51)=18.22$, $p<.001$]과 평가시점[$F(6, 51)=21.09$, $p<.001$]의 주효과가 모두 유의미하였다. 그리고 공격특성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효과가 Wilks값을 포함하여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 51)=3.15$, $p<.05$].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각 증속 변인 별로 다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체감에 있어서는 공격특성, 평가시점, 그리고 공격특성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효과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

표 1. 정서평가 점수의 첫째 날과 둘째 날, 마지막 날의 영화시청 전 후의 평균

정서차원	고공격 특성집단						저공격 특성집단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시청 전	시청 후	시청 전	시청 후	시청 전	시청 후	시청 전	시청 후	시청 전	시청 후	시청 전	시청 후
침체감	12.33 (1.33)	13.21 (1.06)	12.87 (.86)	12.82 (.93)	11.96 (.83)	12.13 (.65)	13.03 (.58)	14.27 (1.21)	12.07 (.90)	11.99 (.83)	10.33 (.76)	11.06 (.82)
명랑감	17.22 (.63)	16.91 (.62)	18.01 (1.72)	14.36 (.93)	18.22 (.49)	13.22 (.78)	18.22 (1.22)	14.27 (.86)	18.32 (.53)	11.33 (1.03)	17.33 (.73)	14.03 (.82)
불안감	5.43 (.53)	5.03 (.53)	5.22 (.33)	4.01 (.21)	4.91 (.44)	3.12 (.31)	4.36 (.31)	4.18 (.36)	3.96 (.47)	3.33 (.36)	3.88 (.61)	3.41 (.47)
안정감	6.37 (.333)	5.21 (.41)	6.06 (.44)	6.11 (.23)	6.36 (.38)	4.31 (.56)	7.01 (.21)	6.33 (.37)	6.86 (.21)	6.76 (.38)	6.36 (.61)	5.21 (.34)
불쾌감	12.31 (1.26)	10.03 (2.21)	11.21 (1.33)	10.11 (.86)	9.61 (1.48)	7.21 (.70)	11.31 (1.21)	11.03 (.88)	10.66 (.89)	10.81 (.96)	10.36 (1.37)	9.88 (.98)
유쾌감	11.23 (2.33)	10.81 (1.12)	12.01 (1.61)	11.83 (.93)	11.96 (.88)	12.88 (2.11)	13.01 (1.32)	12.01 (.96)	12.88 (.87)	12.96 (1.21)	13.88 (1.99)	13.98 (2.03)

()안은 표준오차

표 2. 변인별 정서평가 점수의 다변량분석표

변 인	Test Name	Value	Hypoth. df	Error df	F
피험자간 변인 공격특성	Pillais	.85	6	51	12.59**
	Hotellings	5.81	6	51	12.59**
	Wilks	.15	6	51	12.59**
	Roys	5.81	6	51	12.59**
피험자내 변인 측정시점	Pillais	.91	6	51	21.09**
	Hotellings	9.73	6	51	21.09**
	Wilks	.09	6	51	21.09**
	Roys	9.73	6	51	21.09**
공격특성 × 측정시점	Pillais	.59	6	51	3.15*
	Hotellings	1.45	6	51	3.15*
	Wilks	.41	6	51	3.15*
	Roys	1.45	6	51	3.15*

** $p < .001$ * $p < .05$

지 않았다.

명랑감에 있어서는, 평가일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2, 112)=12.40, p < .001$]. 즉, 첫째 날($M=22.16$)에 비해 둘째 날($M=20.64$)과 마지막 날($M=20.93$)에 명랑감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었다.

불안감에서는 공격특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6)=13.23, p < .001$]. 즉, 고공격 특성집단

($M=4.62$)이 저공격 특성집단($M=3.85$)에 비해 더 높은 불안감을 보였다. 또 평가일 [$F(2, 112)=11.74, p < .001$]과 평가시점의 주효과 [$F(1, 56)=14.06, p < .001$]가 있었다. 즉, 마지막 날의 평가점수($M=7.66$)가 첫째 날의 불안점수($M=9.50$)와 둘째 날의 불안점수($M=8.26$)보다 더 낮아졌다. 또 영화시청 전의 불안점수($M=4.36$)보다 영화시청 후의 불안점수

($M=3.855$)가 더 낮아졌다.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에도 유의미한 차가 보였다 [$F(2,112)=13.23, p<.001$].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에서 평가일간의 유의미한 차이가 보였다. 즉, 고공격 특성집단의 첫째 날($M=5.23$)과 마지막 날($M=3.65$) 사이의 불안감정의 차($M=1.21$)가, 저공격 특성집단의 첫째 날($M=4.27$)과 마지막 날($M=3.65$) 사이의 불안감정의 차($M=.62$)보다 더 컸다. 안정감에서는 평가일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112)=23.65, p<.001$]. 즉, 첫째 날($M=5.97$)에 비해 둘째 날($M=4.30$)과 마지막 날($M=4.90$)에 안정감에 대한 평가가 줄어들었다.

불쾌감에서는 공격특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6)=10.33, p<.001$]. 즉, 고공격 특성집단 ($M=10.08$)이 저공격 특성집단($M=10.68$)에 비해 더 낮은 불쾌감을 보였다. 유쾌감에서는 평가일 [$F(2, 112)=18.45, p<.001$]의 주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첫째 날($M=11.77$)보다 마지막 날($M=13.01$) 유쾌감에 대한 평가가 높아졌다. 그러나 공격특성과 평가시점의 상호작용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폭력 영화에 대한 불안감은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더 낮을 것이며,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됨에 따라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불안감이 더 많이 감소할 것이라는 가설 1이 지지되었다.

영화평가 분석

먼저 성폭력 영화의 반복 노출에 따른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폭력영화에 대한 폭력수준의 평가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과 마지막 날 폭력수준 평가점수를 측정하였다. 폭력수준 척도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 <표 3>이다.

공격특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평가일(첫

표 3. 영화의 폭력수준 평가점수의 평균

공격특성	평 가 일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고공격 특성	23.20(.83)	18.41(1.22)	10.00(.30)
저공격 특성	27.60(1.39)	26.31(1.87)	23.80(1.01)

()안은 표준오차

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영화에 대한 폭력수준 평가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공격특성 [$F(1, 56)=62.89, p<.001$]과 평가일 [$F(2, 112)=131.90,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고공격 특성집단($M=17.20$)이 저공격 특성집단($M=25.90$)보다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으며, 첫째 날($M=25.40$)과 둘째 날($M=22.36$)보다 마지막 날($M=16.90$)에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112)=40.33, p<.001$].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1>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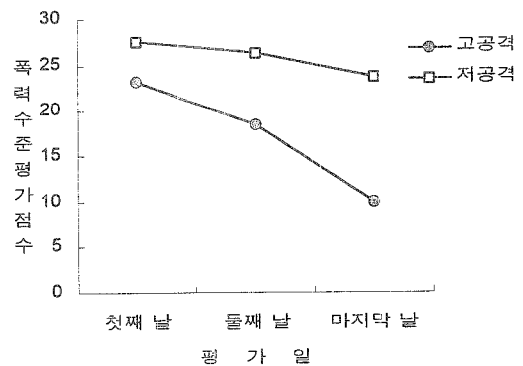


그림 1. 폭력수준평가에 있어서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

공격특성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둘째 날 [$F(2, 112)=33.83, p<.001$]과 마지막 날 [$F(2, 112)=43.83,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둘째 날, 고공격 특성집단($M=18.41$)이 저공격 특성집단($M=26.31$)보다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고, 또 마지막 날, 고공

격 특성집단($M=10.00$)이 저공격 특성집단($M=23.88$)보다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평가일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공격 특성집단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 [$F(1, 56)=59.04, p<.001$]. 즉, 고공격 특성집단은 첫째 날($M=23.26$)과 둘째 날($M=18.41$)보다 마지막 날($M=10.00$)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두 집단은 처음보다 영화의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나,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에 비해 영화의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2-1이 지지되었다.

다음으로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에 따른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영화에 대한 흥미수준의 평가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과 마지막 날의 흥미수준 평가점수를 측정하였다. 흥미수준 평가점수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 <표 4>이다.

표 4. 영화의 흥미수준 평가점수의 평균

공격특성	평 가 일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고공격 특성	9.10(.62)	10.26(.87)	14.30(.26)
저공격 특성	7.50(.99)	8.21(.61)	10.00(.45)

()안은 표준오차

공격특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평가일(첫째 날/둘째 날/마지막 날)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영화에 대한 흥미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공격특성 [$F(1, 56)=19.72, p<.001$]과 평가일 [$F(1, 112)=39.21, p<.001$]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즉, 고공격 특성집단($M=11.22$)이 저공격 특성집단($M=8.57$)에 비해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으며, 영화를 보는 첫째 날($M=8.30$)과 둘째 날($M=9.24$) 보다는 마지막 날($M=12.15$)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2, 112)=4.82,$

$p<.05$].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2>이다.

공격특성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날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마지막 날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1, 56)=24.45, p<.001$]. 즉, 첫째 날과 둘째 날에는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마지막 날에는 고공격 특성집단($M=14.30$)이 저공격 특성집단($M=10.00$)에 비해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평가하였다. 평가일에 대한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공격 특성집단 [$F(1, 56)=35.76, p<.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공격 특성집단은 첫째 날($M=9.10$)보다 마지막 날($M=14.30$) 영화는 더 재미있었다고 평가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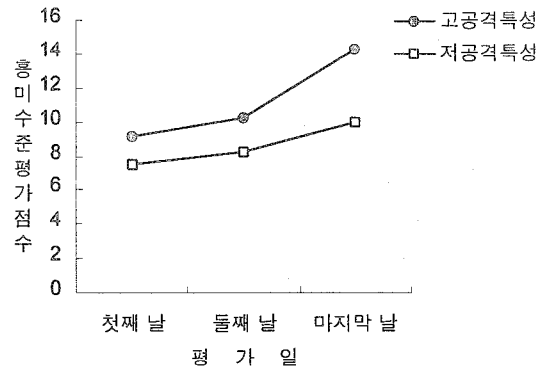


그림 2. 흥미수준평가에 있어서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

이상의 결과에서,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두 집단은 처음보다 영화의 폭력수준을 더 낮게 평가할 것이나,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에 비해 영화가 더 재미있다고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2-2가 지지되었다.

공격특성과 노출횟수에 따른 피해자평가 분석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노출에 따른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폭력 피해여성에 대한 평가의 차이를 분석하기 위하여, 첫째 날, 둘째 날

표 5. 공격특성과 평가일에 따른 피해자평가 점수의 평균

피해자평가요인	고공격특성 집단			저공격특성 집단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첫째 날	둘째 날	마지막 날
피해자의 상해요인	56.7(2.12)	51.4(1.61)	41.7(1.99)	58.3(2.31)	57.2(1.61)	54.3(1.39)
피해자의 호감요인	31.6(1.36)	34.1(1.93)	26.3(1.27)	33.9(2.16)	32.4(1.53)	31.8(1.73)
피해자의 책임요인	26.9(2.21)	25.9(1.96)	17.3(1.03)	26.2(1.11)	26.2(1.48)	25.7(1.63)

()안은 표준오차

과 마지막 날 피해자 평가점수를 측정하였다. 각 집단의 피해자평가 척도의 요인별 점수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낸 것이 <표 5>이다. 그리고 피해자 평가척도 27문항에 대한 내적 합치도 계수로서의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8$ 로 나타났다. 전체 척도와 각 문항과의 상관계수는 .66(문항 26)에서부터 .85(문항 16)까지의 범위에 있었다. 각 하위척도에 대한 Cronbach의 내적 합치도는 요인 1 피해자의 상해요인이 $\alpha=.97$, 요인 2 피해자의 호감요인이 $\alpha=.95$, 요인 3 피해자의 책임요인이 $\alpha=.94$ 였다. 따라서 피해자평가척도의 세 가지 하위척도별 분석과, 세 가지 요인을 하나로 묶은 전체 분석을 통하여 두 집단의 차이를 비교해 보려 한다.

공격특성을 피험자간 변인으로 하고, 피해자 평가요인(상해요인/호감요인/책임요인)과 평가일(첫째 날/둘째 날/마지막 날)을 피험자내 변인으로 하여 피해자평가점수를 변량분석한 결과, 공격특성의 주효과가 유의미하였다 [$F(1, 56)=19.39, p<.001$]. 즉, 저공격 특성집단($M=115.33$)보다 고공격 특성 집단($M=103.97$)의 피해자평가 점수가 더 낮았다.

평가일의 주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2, 112)=92.14, p<.001$]. 즉, 첫째 날($M=116.80$)에 비해 둘째 날($M=113.60$)의 피해자평가 점수가 더 낮았으며, 마지막 날($M=98.55$)의 피해자평가 점수가 가장 낮았다.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도 유의미하였다 [$F(2, 112)=31.84, p<.001$].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그림 3>이다.

공격특성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첫째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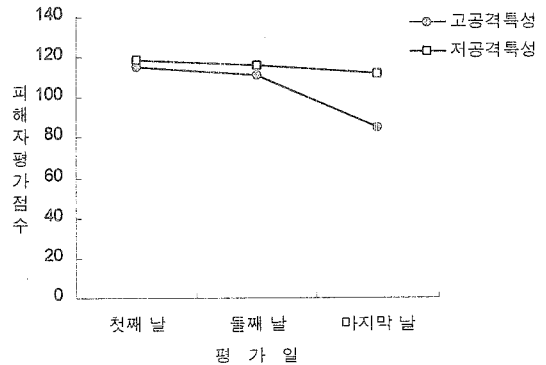


그림 3. 피해자평가에 있어서 공격특성과 평가일의 상호작용효과

[$F(2, 112)=4.59, p<.05$], 마지막 날 [$F(2, 112)=37.41,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가 보였다. 즉, 첫째 날에 고공격 특성집단($M=115.20$)이 저공격 특성($M=118.40$)에 비해 피해자평가 점수가 더 낮았으며, 또 마지막 날에 고공격 특성집단($M=85.30$)이 저공격 특성집단($M=111.80$)에 비해 피해자평가 점수가 더 낮았다. 평가일의 단순주효과를 검증한 결과, 고공격 특성집단 [$F(1, 56)=26.55, p<.001$]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고공격 특성집단은 첫째 날($M=115.20$)과 둘째 날($M=114.40$)보다 마지막 날($M=85.30$)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더 낮게 평가하였다.

이것은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두 집단은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나,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에 비해 피해자의 피해정도를 더 낮게 평가할 것이라는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이다.

반복 노출에 따른 효과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표 6. 공격특성과 노출횟수에 따른 피해자평가 점수 경향분석 요약표

변	량	원	자승화	자유도	평균자승화	F
B _{linear}	at a1	9856.80	1	9856.80	193.21*	
B _{quadratic}	at a1	1995.27	1	1995.27	39.11*	
B _{linear}	at a2	1344.80	1	1344.80	20.47*	
B _{quadratic}	at a2	106.67	1	106.67	1.62	

B : 반복 노출
a1 : 고공격 특성집단
a2 : 저공격 특성집단
* $p < .05$

위하여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피해자평가 점수에 대한 단순경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되어 있다.

<표 6>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경향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일차경향(linear trend)[$F(1, 27)=193.21, p < .001$]과 이차경향(quadratic trend)[$F(1, 27)=39.11, p < .001$]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에서, 고공격 특성집단의 반복 노출과 피해자평가점수 간의 관계는 노출이 1회에서 3회로 증가함에 따라 일차경향과 이차경향에서 피해자평가 점수의 감소경향을 보였다. 일차경향의 설명변량은 83.17%이었으며 이차경향은 16.83%이었다.

반복 노출에 따른 저공격 특성집단의 피해자평가 점수변화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하여 경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일차경향[$F(1, 27)=20.47, p < .001$]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으나 이차경향은 유의하지 않았다.

논 의

이 연구의 목적은 공격특성과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이 남성 시청자의 기분변화, 성폭력 영화 및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려는 데 있었다.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고공격 특성집단과 저공격 특성집단의 불안감

은 모두 감소되었지만, 고공격 특성집단이 저공격 특성집단보다 더 많이 감소되었다. 변화량의 차이는 있었지만, 두 집단 모두 불안감과 불쾌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은 불안감과 우울감을 줄이는 효과를 갖는다는 연구 결과(Bushman, 1996)와도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특성 공격성과 반복 노출의 상호작용효과에 유의미한 차가 있었다는 것은 반복 노출에 따른 시청자의 불안감 감소에는 공격특성의 수준이 크게 관계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다. 이 연구의 결과가 성폭력 영화에 대한 반복 노출이 부정적 정서를 감소시킨다는 연구 결과(Mullin & Linz, 1995)와 일치하지만, 특정정서에만 한정되는 이유는 아직도 설명할 수 없다.

또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되었을 때, 고공격 특성집단은 영화의 폭력수준은 낮고 재미있고, 피해자의 피해정도는 낮다고 평가하였으나, 저공격 특성집단의 평가는 변하지 않는 경향을 보였다. 이것은 고공격 특성자는 폭력적 단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는 공격적 연합-인지망이 저공격 특성자보다 더 정교하게 짜여져 있어 폭력 영상물에 더 관심을 가진 결과, 불안감정, 공격행동과 연합된 자기인식이 둔감화된 결과라고 생각된다(Zillmann, Weaver, Mundorf, & Aust, 1986). 따라서 시청자가 성폭력 영화에서 느끼는 불안과 긴장의 정도는 시청자가 그런 영화에서 지각하는 폭력성과 동정심의 평가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하겠다. 또 그런 정서변화는 실제 생활에서의 폭력 피해자에 대한 판단에도 영향을 줄지도 모른다. 다시 말하면,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에 따라 시청자의 피해자의 상해나 폭력수준에 대한 평가가 감소되고 성폭력 영화에 대한 흥미가 증가했다는 것은 여러 대중매체를 통하여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폭력에의 접촉이 성폭력 대한 둔감성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특히 성폭력 영화에 반복 노출될수록 고공격 특

성집단의 피해자평가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피해자평가척도의 세 가지 요인과의 관련에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즉 상해요인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여성 피해자의 피해 정도를 낮게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호감요인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여성 피해자에 대한 호감도가 높지 않고 친근감을 느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며, 피해자의 책임요인 점수가 낮다는 것은 폭력을 당한 여성 피해자에게 오히려 더 큰 책임을 묻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해요인 점수가 낮아졌다는 것은 가설 3을 지지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영화에 대한 폭력수준 시각의 감소가 현실적인 맥락에서 피해자에 대한 평가를 오도할 수도 있다는 증거를 제공한다. 즉 성폭력 영화에의 반복 노출에 따라 저공격 특성집단보다는 고공격 특성집단이 폭력피해여성의 상해를 더 낮게 평가하였고, 피해자에 대한 호감도도 줄어들어 가해자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에게 더 많은 책임을 들렸다. 이런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첫째 날과 셋째 날 사이에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저공격특성자에게서도 반복 노출에 따라 피해자평가점수가 감소하여 폭력피해여성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보였는데, 이는 성폭력영화가 대인 폭력과 관련된 개인의 도식을 환기시킨 결과라고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고공격 특성집단은 저공격 특성집단에 비해서 폭력피해여성의 상해를 별로 심각하지 않게 평가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보였다. 고공격 특성집단의 피해자에 대한 이런 그릇된 평가가 실제로 일상생활에서도 그대로 적용된다면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안겨줄 것이라 생각된다.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제한점을 안고 있다.

첫째, 실험실이라는 인위적 상황에서 영화를 보고 피해자를 평가하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 느

끼는 정서나 피해자 평가와는 다를 수도 있다는 것이다.

둘째, 이 연구에서는 영화를 보는 동안이나 시청 전후에 생리적 측정을 한다는 것은 실험실 효과를 더 증가시킬 것이라는 생각에서 생리적 측정이 제외되었지만, 정서차원의 변화를 MAACL을 수정한 자기 보고식 정서척도에만 의존하였다는 데에 문제점이 있다.

셋째, 영화 노출사이의 시간 간격이 시청자의 평가에 미치는 효과는 앞으로의 연구과제로 남게 된다.

참 고 문 헌

- 곽금주·윤진(1992). 공격성의 사회인지적 매개 과정에 관한 두 가지 기초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6권, 2호, 1-10.
- 윤진·곽금주(1991). 대중매체의 폭력성이 청소년에게 미치는 영향 - 사회인지 이론에 의한 실험적 접근. *한국 형사정책연구*, 2권, 2호, 53-94.
- 윤진·박윤창(1997). 공격영화가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및 그 중재방안.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1권, 1호, 9-22.
- Bandura, A.(1973). *Aggression: A social learning analysi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Berkowitz, L.(1974). Some determinants of impulsive aggression: Role of mediated associations with reinforcements for aggression. *Psychological Review*, 81, 165-176.
- Berkowitz, L.(1984). Some effects of thoughts on anti- and prosocial influences of media events: A cognitive-neoassociation analysis. *Psychological Bulletin*, 95, 410-427.
- Bushman, B. J.(1996).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 extent and development of aggressive cognitive-associative networks.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22, 811-819.
- Bushman, B. J., & Geen, R. G.(1990). Role of cognitive-emotional mediators and individual differences in the effects of media violence on aggress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 156-163.
- Buss, A. H., & Perry, M.(1992).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3, 452-459.
- Collins, A., & Loftus, E.(1975). A spreading-activation theory of semantic memory. *Psychological Review*, 82, 407-428.
- Davison, G. C., & Wilson, G. T.(1973). Processes of fear-reduction in systematic desensitization: Cognitive and social reinforcement factors in humans. *Behavior Therapy*, 4, 1-21.
- Donnerstein, E., & Berkowitz, L.(1983). Victim reactions in aggressive erotic films as a factor in violence against women. In D. Copp & S. Wendell(Eds.), *Pornography and censorship*(pp.233-255). New York, NY: Prometheus Books.
- Eron, L. D., Gentry, J.H., & Schlegel, P.(1994). Reason to hope: *A psychological perspective on violence and youth*.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Foa, E. B., & Kozak, M. J.(1986). Emotional processing of fear: Exposure to corrective information. *Psychological Bulletin*, 99, 20-35.
- Huesmann, L. R., Eron, L. D., Lefkowitz, M. M., & Walder, L. O.(1984). Stability of aggression over time and generations. *Developmental Psychology*, 20, 1120-1134.
- Huston, A. C., Donnerstein, E., Fairchild, H., Feshbach, N. D., Katz, P. A., Murray, J. P., Rubinstein, E. A., Wilcox, B. L., & Zuckerman, D.(1992). Big world, small screen: The role of television in American society. Lincoln: University of Nebraska Press.
- Josephson, W. L.(1987). Television violence and children's aggression: Testing the priming, social script, and disinhibition predic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3, 882-890.
- Kazdin, A. E., & Wilcox, L. A.(1976). Systematic desensitization and non-specific effects: A methodological evaluation. *Psychological Bulletin*, 83, 729-758.
- Lang, P. J.(1979). A bio-informational theory of emotional imagery. *Psychophysiology*, 16, 495-512.
- Leidholdt, D.(1983). Wap and Now protest 'Pieces'. *Woman News*, 4, November.
- Linz, D., & Donnerstein, E.(1995). Sex and violence in slasher films: A reinterpretatio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8, 243-246.
- Linz, D., Donnerstein, E., & Penrod, S.(1984). The effects of multiple exposure to filmed violence against women. *Journal of Communication*, 34, 130-147.
- Linz, D., Donnerstein, E., & Penrod, S.(1988). Effects of long-term exposure to violent and sexually degrading depictions of wome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5, 758-768.
- Malamuth, N., & Donnerstein, E.(1982). The effects of aggressive pornographic mass media stimuli. In L. Berkowitz(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Vol. 15). New

- York, NY: Academic Press.
- Molitor, F., & Sapolsky, B. S.(1994). Violence towards women in slasher films: A reply to Linz and Dennerstein. *Journal of Broadcasting and Electronic Media*, 38, 247-250.
- Mullin, C., & Linz, D.(1995). Desensitization and resensitization to violence against women: Effects of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 on judgments of domestic violence victim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9, 449-459.
- Olweus, D.(1979). Stability of aggressive reaction patterns in males: A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86, 852-875.
- Paul, G. L., & Bernstein, D. A.(1973). *Anxiety and clinical problems: Systematic desensitization and related techniques*. Morristown, NY: General Learning Press.
- Reid, L. D.(1973). Processes of fear reduction in systematic desensitization: An addendum to Wilson and Davison(1971). *Psychological Bulletin*, 79, 107-109.
- Strube, M. J., Turner, C. W., Cerro, D., Stevens, J., & Hinchey, F.(1984). Interpersonal aggression and the Type A Coronary-Prone Behavior Pattern: Theoretical distinction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7, 839-847.
- Weaver, J. B.(1991). Are "slasher" horror films sexually violent? A content analysis. *Journal of Broadcasting & Electronic Media*, 35, 385-392.
- Wilkins, W.(1971). Desensitization: Social and cognitive factors underlying the effectiveness of Wolpe's procedure. *Psychological Bulletin*, 76, 311-317.
- Wolpe, J.(1958). *Psychotherapy by reciprocal inhibition*.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 Zillmann, D.(1979). *Hostility and aggression*. Hillsdale, NJ: Erlbaum.
- Zillmann, D., Weaver, J. B., Mundorf, N., & Aust, C. F.(1986). Effects of an opposite-gender companion's affect to horror on distress, delight and att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 586-594.
- Zuckerman, M., & Lubin, B.(1965). *Manual for the multiple affect adjective check list*. San Diego, CA: Educational and Industrial Testing Service.

부록 1. 영화평가척도

여러분이 본 영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각 문항을 하나씩 읽고, 이 영화를 보고 느낀 생각이나 의견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응답한 내용이나 정보는 연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약속드립니다. 한 문항도 빠짐없이 그리고 솔직한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은 **맞고 틀린 답이 없으므로 자신의 생각을 가장 잘 표현하는 숫자에 √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 3 4 5
 전혀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그렇지 않다

1. 전반적으로 이 영화는 많은 양의 폭력적인 행동을 담고 있다고 생각한다.	1...2...3...4...5
2. 이 영화는 공격적인 장면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1...2...3...4...5
3. 이 영화는 재미있었다.	1...2...3...4...5
4. 이 영화에서 폭력은 너무나 생생하고 실감있게 그려지고 있다.	1...2...3...4...5
5. 이 영화에서의 폭력은 잔인하고 살인적이었다.	1...2...3...4...5
6. 영화를 즐기면서 보았다.	1...2...3...4...5
7. 영화를 보는 동안 폭력적인 장면 때문에 영화에서 눈을 돌린 적이 많았다.	1...2...3...4...5
8. 이 영화는 여성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	1...2...3...4...5
9. 영화를 보면서 유쾌한 시간을 보냈다.	1...2...3...4...5
10. 영화에서 남성을 향한 공격적인 행동이나 폭력이 많이 보였다.	1...2...3...4...5

학과: _____ 학번: _____ 나이: 만 ____세 성별: 남, 여 이름: _____

☛ 끝까지 질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록 2. 피해자평가척도 문항

1. 남편의 구타는 피해자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2. 남편의 학대로 인하여 피해자는 심리적인 도움을 필요로 한다고 생각한다.
3. 피해자에게 호감이 간다.
4. 이 사례를 본 후, 피해자를 가엾게 여기게 되었다.
5. 남편의 학대에 대한 한 가지 방법으로 이혼과 같은 강력한 행동을 취하도록 피해자를 설득하였다.
6. 피해자의 남편을 구속할 수 있다면 그것을 위해 증언하겠다.
7. 가해자(피해자의 남편)가 피해자를 때린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이다. (-)
8. 이 사례들을 보고 난 후, 남편의 구타 때문에 피해자가 심각한 정신적 쇼크를 겪고 있음을 공감할 수 있었다.
9. 피해자가 그다지 매력적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10. 피해자가 곤란에 처해 있는 것이 딱하다.
11. 피해자에게 남편의 구타를 당하지만 말고 능동적인 대처를 하거나 차선책을 찾도록 권해보겠다.
12. 가해자(피해자의 남편)는 그의 공격적인 행동으로 인해 구속되어야 한다.
13. 남편의 학대는 피해자 자신에게도 어느 정도 책임이 있다. (-)
14. 피해자는 남편의 학대로 인한 신체적인 고통을 참을 만큼 참았다고 생각한다.
15. 피해자가 친근하게 느껴진다.
16. 피해자가 불쌍하다.
17. 잠시 남편 곁을 떠나거나 일시적인 보호를 요청하는 것과 같이 피해자에게 남편의 구타에 대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충고하고 싶다.
18. 피해자는 가해자의 폭행에 충분히 저항했다고 생각한다.
19. 피해자는 심한 상처로 고통스러워하는 것 같다.
20. 피해자가 가깝게 느껴진다.
21. 피해자에게 동정심을 느낀다.
22. 피해자의 남편(가해자)은 피해자를 때린 것에 대해서 마땅히 책임을 져야 한다.
23. 피해자의 육체적인 상해는 심각한 정도라고 생각한다.
24. 피해자는 주위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호감이 가는 사람이었다.
25. 남편의 학대에 대하여 피해자가 취한 극단적인 방법은 결국 피해자의 잘못이다. (-)
26. 남편의 폭행은 피해자를 정신적으로 힘들게 만들었을 것이다.
27. 피해자가 남편의 구타를 그대로 당하고 있었던 것은 타인의 동정을 얻을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다. (-)

Effects of Trait Aggressiveness and Repeated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Mood Change, Film Evaluations and Evaluations of Female Violence Victims

Kwang-Sun Choi, Myung-Sun Chung

Department of Psychology,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xamine effects of trait aggressiveness and repeated exposure to sexually violent films on desensitization toward female violence victims. From a pool of 395 undergraduate male students who completed the Korea version of the Aggression Questionnaire as part of battery of tests given in testing sessions, 30 individuals who scored above the 75th percentile on the scale, and 30 who scored below the 25th percentile, were contacted and scheduled as participants.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First, three days following exposure to the final film, high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were more likely to show anxiety and displeasure than were low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Second, high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enjoyed the slasher films significantly more than did low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Third, high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were much more likely to evaluate the victim as more responsible for her own violence than were low trait aggressive individuals.

Longterm, frequent exposure to violent media may cause high trait aggressive viewers to become more easily desensitized during subsequent exposures.